

‘양파값 파동’... 직접 살 길 찾아 나선 농민들

무안군 몽탄면 달산마을 농가들은 9월 계약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경북지역 상가들과 ‘양파 직거래’를 실시한다.

이들 15개 농가가 9만9173㎡(3만평) 밭에서 생산하는 규모는 6000t. 무안 전체 재배 면적(1284ha)의 0.78%에 불과하지만, 농협 수매나 중간 도매상이 아닌 직거래는 무안 지역 내 첫 사례로 꼽힌다.

주민들은 특히 “더이상 유통차는 양파값에 가슴을 졸일 필요가 없어졌다”며 기뻐하고 있다.

농민들 스스로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유통채널 다각화로 살길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 수급 정책을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을 주민들은 “현재대로라면 널뛰기 하듯 유통차는 양파값을 미리 예상해 2년에 한 번 ‘대박’을 터트리자는 투기 심리로

무안 몽탄면 달산마을 15개 농가

“정부 정책 못믿어” 경북지역 상가와 첫 직거래

‘농산물 제값받기’ 위해 유통채널 다각화 모색

농사를 지어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기껏 힘들여 양파를 생산해놓고 시중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중간 유통업자에게 팔아야 하니 후회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도 했다.

당장, 최근 시장에서 1kg당 1000원대에 이르는 등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발매기 거래를 마쳐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훨씬 낮은 가격에 ‘발매기’로 사들인 중간 유통업자들은 이른바 ‘로포’를 맞았다는 말도 나온다.

양파값은 매년 널뛰기하듯 가격이 형성됐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 따르면 양파 1kg 상품 기준 전국 평균 도매가는 ▲

2010년 1502원 ▲2011년 552원 ▲2012년 684원 ▲2013년 2287원 ▲2014년 627원으로 급등·락을 반복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농민들 사이에서 자칫 쪽박을 차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유통가격에 대한 불만도 커졌다. at의 유통실태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양파 소매가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56%에 달했다.

마트에서 소비자가 양파를 1000원 구매했다면 유통비가 715원이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양파값이 가장 비쌌던 지난 2013년의 경우 무안 농가들은 평균 800원(1kg)에 양파를 판매, 수확비와 운송비 등을 빼면 612원만 손에 쥐었다. 당시 무안

양파의 평균 소매가는 3619원에 달했다.

양파 값 폭락 땀 폐기,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정부의 ‘이민법적인’ 수급정책을 못 믿겠다는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생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갈아 엮지 않기 위해 얼마나 생산해야 할까, 언제 팔아야 할까, 어디로 팔아야 할까 등 개별 예측까지 해야 했다.

달산마을 이병철(52) 이장은 “농협 수매 가격도 농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정부 수급정책은 폐기 아니면 수입인데, 누가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짓겠냐”고 했다. 그는 “마을 농민들이 직접 판로를 찾아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고 했다.

한편, 전남 양파 생산량은 300평(991.7㎡)당 6400kg에서 올해 5800kg(10.9% 감소)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양파 값 파동으로 재배 면적이 24.1%(1만2080ha→9171ha)나 줄어들면서 가격대비 수입도 감소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장맛비 속 우산행렬 장맛비가 내린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형형색색의 우산을 쓴 대학생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익산 택시기사 피살사건’ 법원 재심에 검찰 반발

대법원 인용편 무산 가능성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혼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과 관련, 검찰이 법원의 재심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검은 25일 해당 사건 범인으로 지

목돼 살인죄로 10년만 복역한 최모(31)씨와 관련,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하게 되면 재심은 무산되며 각각 1년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고법에서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듣자 오토바이가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고법에는 지난 22일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가 충분한 만큼 재심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이다. / 김지용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 해질 19:51 | 다음날 14:08 | 다음날 01:06

장마 소강상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1/25	보성	비온뒤	20/24
목포	22/24	순천	비온뒤	20/25
여수	21/24	영광	비온뒤	20/24
나주	20/25	진도	비온뒤	21/24
완도	21/24	전주	비온뒤	21/26
구례	20/26	군산	비온뒤	20/25
강진	21/25	남원	비온뒤	20/24
해남	21/25	홍산도	비온뒤	19/22
장성	비온뒤			20/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서~서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남서~서 1.5~2.5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5~2.5	서~북서 1.5~2.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10
- 빨래: 20

◇주간 날씨

27(토)	28(일)	29(월)	30(화)	7/1(수)	2(목)	3(금)
☀	☀	☀	☀	☀	☀	☀
19/27	20/30	19/29	20/26	21/27	21/28	21/30

경찰이 휴대전화·노트북 압수할 땐 어떻게?

민변, 수사대응 가이드북 ‘졸지마 형사절차’ 개정판 발간

경찰이 대학생 A씨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들이밀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려 한다. 적법한 수사일까? 답은 ‘아니오’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기기가 아니라 기기 안에 든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일상적 물건이라 압수를 하면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12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졸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을 발간했다. 2009년 냈던 책을 최신 사례 및 판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 등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압수하려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 연합뉴스

“왜 놀라게 해!” 유턴 차량 추격 야구 방망이로 폭행

30대 운전자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5일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불법 유턴 차량 운전자를 추격한 뒤 폭행한 혐의(집단 흥기 등 상해·일반 교통방해)로 이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왕복 4차로에서 유턴자(36)를 내리게 한 뒤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K7 승용차를 추월, 가로막은 뒤 자신의 차량에 있던 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안에서 쉬고 있던 이씨는 K7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유턴하는 모습에 놀라 화끈에 쫓아갔다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JT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